내가 캔 고구마 크죠? 21일 광주의 한 유치원생들이 광주시 북구 본촌동 고구마체험 학습장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을 가졌다. 어린이들이 자신이 직접 캔 고구마를 들고 즐거워하는 표정이 귀엽기만 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방과 후 학교' 겉돈다

강좌 수 부족·만족도 떨어져 … 강사 질 향상 등 대책 시급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가 강좌 수 부족 등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광주시의회 조호권(민·북구 5) 의원은 21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시 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다 강좌 수도 타 자치단체 교육청에 비해 적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 만족도는 2008년 70.49%였으나, 지난해는 67%로 하락했다. 학부모 만족도도 2008년 67.46%에서 66%로 1.46%포인트 떨어졌다.

또한, 2010년(4월 기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과 강좌 수 평균은 2개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기적성 강좌 수 평균도 13.2개로, 전국 7개 광역도시 중 가장 적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16.7개)보다 3.5개나 감소했다.

올해(4월 기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과 학생 참여율 또한 7%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했으며, 7대 도시 교육청 중에는 대전 3.7%에 이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 특기적성 학생참여율은 56.5%로, 상위권에 위치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금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학생의 1인당 지원금은 2만4000원으로, 1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다. 수강료 지원 학생비율은 8.2%로, 대전(7.6%)과 인천(7%)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다.

조 의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지난해 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사의 질, 다양한 강좌 개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광주시교육청 내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21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조호권(민주·북구 5) 의원의 학교 체육시설 무료개방과 관련한 답변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시설 대여자인 학교장이 시설보호 및 관리 등의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광주시청과 협약을 통해 무료개방을 위해 내년도 예산 3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교사·중학생 성관계 '처벌 불가'

국회 "형법 개선" 목소리

유럽 등선 무조건 처벌

성인이 13세 이상 '부녀(婦女)'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은 연령·성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지적했다.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15세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근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는 반면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때만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3세 이상이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본다는 얘기이며,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하며, 대만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광주천 수달 보호 어떻게…

市, 광주 대표 동물 '깃대종' 선정 절차 착수

환경단체 "이동원인 파악 서식환경 개선부터"

수달이 광주천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전 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수달을 깃대종으로 선정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깃대종 선정 이전에 명확한 수달의 이동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개체 수가 최소 3~4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하천생태 건강성 지표종인 수달 및 서식지를 복원해 전국 최초로 깃대종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깃대종은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동·식물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21일 "지난달과 이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각각 광주천 상류와 하류에서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최소 개체 수가 3~4마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시 전역을 범위로 수달서식지 및 먹이사슬 조사, 서식지 환경보호 및 복원대책 수립, 수달 서식장면 촬영 및 이동경로 등 TV 다큐멘터리 제작·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나 환경단체는 제2수원지에 서식하는 수달이 먹이 부족, 서식환경 악화 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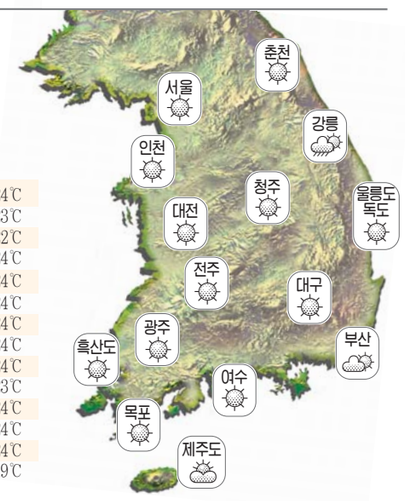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춘희 국장은 "수달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늘 날씨

해뜸 06시 44분 해짐 17시 49분 달뜸 17시 03분 달짐 05시 48분

붉게 물든 가을 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2/24℃
목 포	맑음	12/23℃
여 수	구름조금	17/22℃
완 도	맑음	13/24℃
구 례	맑음	9/24℃
해 남	맑음	10/24℃
장 흥	맑음	11/24℃
고 흥	구름조금	13/24℃
순 천	맑음	13/24℃
영 광	맑음	10/23℃
진 도	맑음	12/24℃
전 주	맑음	11/24℃
남 원	맑음	9/24℃
흑산도	맑음	15/1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동~동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동~동	2.0~4.0m

	밀물	썰물
목포	01:22 13:51	06:41 19:07
여수	08:27 20:36	02:09 14: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날 씨						
최저/최고	12/24	12/22	14/17	8/14	4/15	4/17

주말·휴일 흐리고 비

다음주 기습추위 쌀쌀

주말과 휴일 동안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린 뒤, 다음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습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은 제주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다"며 "이번 비는 25일까지 이어지다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